

## 정신질환자간호 시뮬레이션교육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한종숙<sup>1</sup>, 백희정<sup>\*</sup>, 정안순<sup>2</sup>  
<sup>1</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sup>2</sup>경북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Simulation on Anxiety and Self-confidence about Clinical Placement of Nursing Students

Jong-Sook Han<sup>1</sup>, Hee Chong Baek<sup>\*</sup>, An-Soon Jeong<sup>2</sup>

<sup>1</sup>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요약** 간호학생들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간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시뮬레이션교육은 임상상황과 유사한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수행되므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이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3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실험군(N=28)은 조현병환자 시나리오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실시하고, 대조군(N=18)은 실험군과 같은 내용의 사례를 적용한 토론교육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비교검증을 위해 t-test와 ANCOVA를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자신감은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에 수행한 시뮬레이션교육은 간호학생의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anxiety and fear of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sychiatric patients due to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mental illness and skill to take care of the patients. The simulation education is known as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since being performed in a non-threatening environment similar to clinical setting. The purpose of this nonequivalent quasi-experimental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imulation on anxiety and self-confidence about the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The third year nursing students at a three year nursing program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the experimental group (N=28) the simulation education using the standardized patient based on the scenario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as performed, and for the control group (N=18), the debated education applying the case study same a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made in the class. Using SPSS, t-test and ANCOVA were analyzed to compare the anxiety and self-confid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nxiety score on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 of the experimental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but the self-confidence score for the performance of psychiatric nursing car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ccordingly the simulation education can be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to reduce anxiety about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Anxiety, Nursing Student, Self-confidence, Simulation, Standardized Patient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ee Chong Baek(Chung-Ang University)

Tel: +82-2-820-5976 email: hcbaek@cau.ac.kr

Received October 7, 2015

Revised (1st October 27, 2015, 2nd October 29, 2015, 3rd November 2,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4th November 5, 2015, 5th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건강간호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간반응의 진단과 치료에 관여하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및 재활을 위한 예방전략과 중재를 제공한다[1].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서는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실무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간호수행 능력의 향상 및 가치관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2,3]. 그러나 선행연구[4,5]에서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Sharif & Masoumi[6]는 다양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을 지적 하였다.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은 환자의 질병특성 상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을 주요 간호중재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교과목에 비해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Hung, Huang & Lin[7]은 간호학생의 첫 정신간호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임상실습 과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깨짐, 환자와의 신뢰관계 증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학생의 성장과정이라고 제시하면서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간호학 실습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간호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교육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부터 대중매체에 의해 습득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8,9].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부족’ 등이 있고[10-12],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10]. 그러므로 임상을 나가기 이전에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교육은 임상상황과 유사한 환경이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불안감소 및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시뮬레이션교육에서 표준화환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이 가

능하기 때문에 임상현장 적응력과 순발력, 환자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이다 [14]. 따라서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 전에 학내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한다면 정신건강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어 효과적인 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를 계기로 국내 간호학 교육에서는 시뮬레이션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교과에서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간호학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사례보고나 효과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교육이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학내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정신건강간호학 실습교육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건강간호학 교과목에서 임상실습을 하기 전, 학내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적용한 군과 사례적용 토론교육을 한 군간에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의 차이를 비교하는 비동등성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개의 3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에 참여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교육방법을 적용한 2개 대학에서 수행하였으므로 교과과정의 차이로 인한 혼란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타 전공교과 임상실습을 모두 마치고 정신간호학 실습교육만을 남겨두고 있는 자로 하였다.

시뮬레이션교육 대상자인 실험군은 28명이었고, 사례

적용 토론교육 대상자인 대조군은 18명으로 총 4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 크기의 적절성을  $G^*power$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 효과크기를 0.7로 하여 평가한 결과, 검정력은 .77이었다[15].

### 2.3 연구절차

연구는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1개 대학 간호학생은 실험군으로 시뮬레이션교육을 하였고, 다른 1개 대학 간호학생은 대조군으로 사례적용 토론교육을 하였다. 교육자료는 조현병 환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3학년 대상 정신건강간호학 수업에 적합하도록 연구진이 개발하였고, 시뮬레이션교육을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수간호사, 전공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교육자료는 정신건강간호학 교수 2인, 정신전문간호사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최종 교육자료인 조현병 사례는 망상과 환각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사례이며 수업 목표는 환자와의 관계형성, 치료적 의사소통, 간호과정의 적용이었다.

#### 2.3.1 시뮬레이션교육

실험군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하였다. 표준화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Wallace[16]의 표준화환자 코칭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훈련하였다.

4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루어 시뮬레이션교육 절차인 오리엔테이션, 브리핑, 시나리오 실행, 디브리핑의 4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조별 시뮬레이션은 같은 내용을 2회 반복하였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의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은 총 90분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20분, 조별 시뮬레이션 20분(브리핑 5분, 시나리오 실행 10분, 디브리핑 5분)씩 2회, 전체 디브리핑 30분이 소요되었다.

#### 2.3.2 사례적용 토론교육

대조군은 시뮬레이션교육과 동일한 조현병 환자 사례를 이용하여 총 18명의 학생을 6명씩 3개조로 구성하여 토론교육을 하였다.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소집단 토론, 발표, 전체 토론으로 구성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 20분, 조별 토론 60분, 조별 발표 10분씩 30분, 전체 토론 30분으로 총 100분이

소요되었다. 조별 토론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지시사항으로 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전체 토론에서는 교수자가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불안

불안은 Spielberg[17]가 개발하고 Hahn, Lee & Chon[18]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Y형 한국어판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상태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상태불안 20문항만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Hahn, Lee & Chon[18]의 연구에서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사전 .92, 사후 .94이었다.

#### 2.4.2 자신감

간호학생의 정신건강간호에 대한 자신감은 건강관리 환경에서 간호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19]. 본 연구에서 자신감은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의 목표 달성으로 습득되는 것이므로 연구자가 조현병 환자간호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간호에 대해 환자와의 관계형성, 치료적 의사소통, 간호과정을 포함하여 9개 항목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정신건강간호학 교수 2인이 검토하였고, 준거타당도를 볼 수 있는 유사도구가 없으므로 100mm의 시각적상사척도를 이용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도구와 시각적상사척도와의 상관계수  $r=.36$  ( $p<.05$ )로 두 도구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사전 .85, 사후 .74이었다.

### 2.5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교육 전에 연구의 목적, 절차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해를 입지 않

음과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함과 수집된 자료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서면동의한 자에게 교육 전과 후에 연구보조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 2.6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불안, 자신감에 대한 동질성 분석은  $\chi^2$ -test와 t-test로 하였고 [Table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점수와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 점수는 교육 목표에 따라 환자와의 관계형성, 치료적 의사소통, 간호과정 적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자신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사전 점수에서 차이를 보인 간호과정 영역의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군간 차이는 ANCOVA를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일반적 특성인 연령은 실험군 평균 21.96세, 대조군 21.78세로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학생 1명, 여학생 27명이었고 대조군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6명이었으며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Characteristics	Exp.	Con.	$\chi^2/t$	p
	n(%) / M±SD	n(%) / M±SD		
Age	21.96±2.29	21.78±1.56	.30	.763
Gender				
Male	1(3.6)	2(11.1)	1.02	.552
Female	27(96.4)	16(88.9)		
Anxiety	2.49±0.35	2.30±0.52	1.46	.190
Self-confidence	2.45±0.41	2.78±0.32	-2.95	.005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2.71±0.66	2.94±0.54	-1.29	.203
Therapeutic communication	2.61±0.63	2.83±0.51	-1.33	.190
Applying nursing process	2.43±0.45	2.86±0.36	-3.42	.001

Exp.=Experimental group (N=28); Cont.=Control group (N=18)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점수는 사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46, p=.190$ ), 자신감 점수는 환자와의 관계형성 영역과 치료적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간호과정 영역에서 실험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차이를 보였다( $t=-3.42, p=.001$ )[Table 1].

### 3.2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과 후의 불안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불안점수는 교육 전 평균 2.49점에서 교육 후에는 2.33점으로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교육 전 2.30점에서 교육 후에는 2.37점으로 증가하여, 실험군의 교육 전·후 차이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t=-2.18, p=.035$ ). 즉, 시뮬레이션교육을 받은 군이 사례 적용 토론교육을 받은 군보다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에 대한 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anxiety between two groups (N=46)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post-pre)	t	p
	M±SD	M±SD	M±SD		
Exp.	2.49±0.35	2.33±0.33	-0.16±0.31	-2.18	.035
Con.	2.30±0.52	2.37±0.56	0.07±0.27		

Exp.=Experimental group (N=28); Cont.=Control group (N=18)

### 3.3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는 실험군은 사전 2.45점에서 사후에는 2.57점으로, 대조군은 사전 2.78점에서 사후에는 2.80점으로 증가하였다[Table 3]. 그러나 사전 자신감 점수가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사후 자신감 점수 차이가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추정평균은 2.63점(SE 0.05), 대조군의 추정평균은 2.72(SE 0.07) 이었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22, p=.275$ ). 즉, 사전 자신감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자신감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4].

**Table 3.** Differences in Self-confidence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F	p
		M±SD	M±SD		
Self-confidence (Total)	Exp.	2.45±0.41	2.57±0.32	1.22*	.275
	Con.	2.78±0.32	2.80±0.28		
Formation of relation with patient	Exp.	2.71±0.66	2.75±0.52	0.22	.829
	Con.	2.94±0.54	2.94±0.64		
Therapeutic communication	Exp.	2.61±0.63	2.61±0.63	-0.59	.563
	Con.	2.83±0.51	2.83±0.51		
Applying nursing process	Exp.	2.43±0.45	2.56±0.32	2.39*	.132
	Con.	2.86±0.36	2.85±0.32		

\*ANCOVA, Exp.=Experimental group (N=28); Con.=Control group (N=18)

**Table 4.** ANCOVA results of Self-confidence

Variables	SS	df	MS	F	p
Pre-confidence	1.103	1	1.103	15.89	<.001
Group	.085	1	.085	1.22	.275
Error	2.984	43	.069		
Total	331.222	46			

####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을 위한 시뮬레이션교육이 간호학생의 불안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두 가지 교수-학습방법인 시뮬레이션과 사례연구 방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적용 토론교육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교육 후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정신질환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목표 중 하나가 치료적 관계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이므로 본 연구에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교육은 환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고충실도 시뮬레이션과 표준화환자 등을 사용하는 중간정도의 충실도 시뮬레이션, 그리고 단순 마네킹을 사용하는 저충실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고충실도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방법이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20]뿐 아니라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방법이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간호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13]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표준화환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시뮬레이션 교수-학습방법이 간호학생의 불안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Hyun & Seo[8]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이 정신간호학 임상실습 전에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실습을 하면서 태도 및 견해가 변화되었으며, 정신간호학 강의만 받았을 때보다 강의와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간호학생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대[21]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적용 토의 교육보다 표준화환자 활용 시뮬레이션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표준화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감소되면서 불안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 & Kweon[14]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이 불안을 조절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학습방법이라고 제시하였고, 표준화환자 활용 시뮬레이션교육이 간호수행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22]. 따라서 표준화환자활용 시뮬레이션교육은 간호학생들의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소 뿐만 아니라 간호수행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시뮬레이션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 사례적용 토론교육에 참여한 대조군의 교육전·후 자신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23]은 기계환기 환자간호에 대한 고충실도 환자 시뮬레이션교육과 강의식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의 자신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반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24-27]. Son 등[28]은 의전원 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술기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자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충실도 사례보다 고충실도 사례를 경험하였을 때 자신감이 낮아졌으며, 연습의 필요성도 더 많이 느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자신감이 높아진 것은 임상실습 전 사전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론적 지식획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자신감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직접 표준화환자와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정신질환자 간호가 어렵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후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결과,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사례적용 토론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교육은 정신건강간호학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실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시뮬레이션교육과 사례적용 토론교육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교육방법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후에 두 군의 차이를 측정하는 후후연구와 정신질환자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학생으로 확대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시뮬레이션교육과 사례적용 토론교육에 이용한 사례가 조현병 환자사례이었으므로 연구의 효과를 정신질환자간호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적용 사례가 정신건강간호학의 단편이긴 하나 정신건강간호학 영역에서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으로 시뮬레이션교육을 수행한 것과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앞으로 정신건강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시뮬레이션교육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교육과 사례적용 토론교육만을 비교하였으므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 Yang, et al.,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4th ed.)", pp17, Seoul: Hyunmoonsa, 2011.
- [2]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1, pp. 27-35, 2003.
- [3] H. S. Lee, E.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 5-13, 2008.
- [4] J. I. Kim, J. S. Lee,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3, No.2, pp. 102-108, 2011.
- [5] S. Y. Han, Y.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2, pp. 554-561,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2.554>
- [6] F. Sharif, S. Masoumi,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ioMed Central Nursing, Vol.4, No.6, pp. 1-7, 2005.  
DOI: <http://dx.doi.org/10.1186/1472-6955-4-6>
- [7] B. J. Hung, X. Y. Huang, M. J. Lin, "The first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udents in Taiwan: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18, No.22, pp. 3126-3135,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08.02610.x>
- [8] M. S. Hyun, M. A. Seo,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of the nursing students' in psychiatric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9, No.1, pp. 44-53, 2000.
- [9] M. H. Kim,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lived-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um in psychiatric departm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15, No.1, pp. 13-23, 2014.
- [10] J. I. Bai,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8, No.2, pp. 411-423, 1999.
- [11] E. J.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the stress experienced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6.
- [12] H. N. Ahn, "A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d by

-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experience in psychiatric w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4.
- [13] K. Flynn, “The use of standardized patients to minimize anxie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set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t. Catherine University, 2012.
- [14] S. Y. Park, Y. R. Kweon,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1, pp. 79-88,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1.79>
- [1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 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6] P. Wallace, “Coach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use in the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pp. 17,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7.
- [17] C. D. Spielberger,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3.
- [18] D. W. Hahn, C. H. Lee, K. K. Chon,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 (K-STAI)”,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 No.1, pp. 1-14, 1996.
- [19] C. Larew, S. Lessans, D. Spunt, D. Foster, B. G. Covington, “Innovations in clinical simulation: Application of Benner's theory in an interactive patient care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27, No.1, pp. 16-21, 2006.
- [20] M. E. Megel, J. Black, L. Clark, P. Carstens, L. D. Jenkins, J. Promes, M. Snelling, K. E. Zander, A. Bremer, T. Goodman, “Effect of high-fidelity simulation on pediatric nursing students' anxiety”,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8, No.1, pp. 419-428, 2012.  
DOI: <http://dx.doi.org/10.1016/j.ecns.2011.03.006>
- [21] H. S. Kim, M. R. Eom,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4, No.3, pp. 276-284, 2005.
- [22] S. J. Choi, M. S. Kwon, S. H. Kim, H. M. Kim, Y. S. Jung, G. Y. Jo, “Effects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health assess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 97-105,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97>
- [23] C. S. Kim, “Development and effect of high fidelity patient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3.
- [24] Y. A. Song, Y. J. Son,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for core skill of maternity nursing”,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16, No.1, pp. 37-44, 2013.
- [25] Y. K. Ha, C. K. Koh, “The effects of mechanical ventilation simulation on the clinical judgment and self-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9, No.2, pp. 119-126, 2012.
- [26] S. Y. Yoo, “Development and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program for newborn emergency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27] B. A. Murray, “The use of high-fidelity simulation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clinic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Education, Vol.2, No.1, pp. 1-12, 2014.
- [28] H. J. Son, J. U. Kim, Y. R. Yi, B. M. Hwang, “The change of perception according to the fidelity of simulation i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for procedural skill of 4th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3, pp. 1178-12185,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3.1178>

한 종 숙(Jong-Sook Han)

[정회원]



- 198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증진, 간호교육

백 희 정(Hee Chong Baek)

[정회원]



-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시뮬레이션교육, 전문직업성

정 안 순(An-Soon Jeong)

[정회원]



- 199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만성정신질환자 증제, 간호교육